

## Weekly Night Music - Sloth Recordbar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평균 33세부터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큰 비극이자 손해입니다.세상에는 너무 보물과 같은 음악이 많고, 음악이 주는 위로와 기쁨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슬로스레코드바는 미처 접해보지 못한 그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듣다보면 당신의 잠들어있는 감각을 깨우는 음악을 만나실 것입니다. WNM을 맞이하여 누구나 감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만 한 “장면적인”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듣는다는 표현은 공유하지만 귀에 들리는 것(hear)과 감상하는 것(listen)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asy listening, Library, Instrumental 부터 Trip-hop, Electronica, Contemporary 까지 60년대 과거부터 2024년 현대를 아우르는 이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에게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부터의 리스트와 설명은 전혀 모르더라도 상관 없는 부가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단지 음악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 **1. SVEN WUNDER - TAKE A BREAK (FROM LATE AGAIN, 2023)**

Jazz, Soul, Easy Listening, Westarn의 절묘한 조합으로 낮은 조도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4번째 Full-Length 앨범 Late Again에서 단연 돋보이는 싱글 Take a Break입니다. 스웨덴에서 날라온 이 멋진 앨범으로 그는 스웨덴 그라미상 올해의 재즈 앨범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스의 캐치프레이즈인 “최대한 게을러지세요”에 걸맞는 첫 곡입니다.

## **2. STEFANO TOROSSO - FEELING TENSE (FROM FEELINGS, 1974)**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더블베이스 주자인 STEFANO TOROSSO의 대표적인 앨범 Feelings의 수록곡으로 Easy Listening, Jazz, Rock, Soul, Psychedelic이 버무려져 멋진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냅니다.

## **3. KOOL AND THE GANG - SUMMER MADNESS (FROM LIGHT OF THE WORLDS, 1974)**

Soul, Funk, Disco, R&B 그룹으로 잘 알려진 Kool and the gang의 Instrumental 로 워낙 큰 히트를 한 대작입니다. 5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Light of the world는 그들의 가장 영적이고 정교한 앨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감한 메인 신스 라인이 인상적인 이 곡은 Soul, Jazz, Rock, Psychedelic 의 정교한 조합은 수많은 리메이크와 샘플링으로 지금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4. JOHN CAMERON - HALF-FORGOTTEN DAYDREAMS (FROM KPM 1000 SERIES : VOICES IN HARMONY, 1973)**

영국의 뮤직레이블 KPM은 고품질의 Library 음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음악들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에서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EMI Production Music으로 리브랜딩 되었지만, 수많은 레코드 디저들이 KPM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시절의 기악곡에 담긴 감성에 대한 노스텔지어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앨범 Voices In Harmony는 1973년에 "보이스, 브라스,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팝 타이틀의 선택"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앨범 전체를 주도한 Keith Mansfield와 John Cameron의 이 작품 컬렉션을 "현악이 엮이고, 하모니가 가득한 KPM 고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HENRY MANCINI - LUJON (FROM MR.LUCKY GOES LATIN, 1961)**

Easy Listening이나 Film Score를 잘 모르더라도 만치니라는 이름은 한번 즈음 들어보셨을 법 합니다. 그는 작곡가이자 지휘자, 편곡가 겸 피아니스트, 플루티스트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명입니다. 아카데미상 4회와 골든 글로브상 1회 그리고 그래미상 20회를 수상하며 사후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까지 수상합니다. Latin Jazz, Easy Listening, Light Music, Space-Age 로 60년대에서 온 이 곡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DAVID VERSACE - WITH TIME (FROM EYE TO EYE, 2024)**

David Versace는 호주의 멀티장르 키보디스트, 작곡가, 프로듀서입니다. 재즈를 베이스로 삼바, 엠비언트 그리고 댄스플로어 히터까지 다영한 음악과 사운드를 다룹니다. 재즈와 전자음악의 조화는 2024년에도 여전히 신선합니다.

## **7. AURA SAFARI, JINI TENOR - LAST WALTZ IN PERUGIA (FROM SENSORY BLENDING, 2024)**

이탈리아의 재즈 밴드 Aura Safari와 핀란드의 테너 색소폰 주자 Jimi Tenor의 멋진 합작 앨범인 Sensory Blending은 앨범 발매 이전부터 제가 눈 여겨 보고 슬로스레코드바의 레코드 컬렉터 모임인 LP살롱을 통하여 공동구매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멋진 그루브와 사운드로 채워진 이 앨범의 가장 압도적인 경험은 Last waltz in perugia를 청취할 때 입니다. 다이내믹의 파도는 마치 빅 웨이브에서 서핑하는 경험 같습니다. 슬로스가 꼽은 올해의 재즈 앨범입니다.

## **8. DEMIAN LOVE - SOMEDAY (FROM SOMEDAY, 2023)**

분위기 전환 겸 보컬 곡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Instrumental의 연속에서 갑자기 흘러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는 큰 힘을 갖기 마련이죠. R&B, Alternative, Fork, Indie-pop 으로 구분 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Demian Love는 한국의 주목할만한 아티스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9. DJ SHADOW - WHAT DOES YOUR SOUL LOOK LIKE, PT.1 - BLUE SKY REVISITED (FROM ENDTRODUCING..., 1996)**

DJ SHADOW 는 instrumental hiphop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자 sampling 기법을 한차원 높은 곳으로 올려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전설적인 첫 앨범 Endtroducing은 최초로 샘플만을 가지고 만든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몽환적이지만 아름다운 그의 곡들은 디제이/프로듀스들에게 한단계 높은 수준의 샘플 디깅을 보여줍니다.

## **10. MAXIMUM JOY - SILENT STREET / SILENT DUB (FROM STRETCH, 1981)**

Post Punk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영국 밴드 MAXIMUM JOY의 데뷔 앨범에서 한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감상하실 곡은 복잡한 퍼커션, 댄서블 한 베이스라인, Afrobeat, Reggae, Avant-grade, Jazz, Funk, Dub을 교묘하게 엮어 여성 보컬을 얹는 그들의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Silent Street / Silent Dub 입니다.

## **11. FLANGER - ENDLESS SUMMER (FROM TEMPLATES, 1999)**

Flanger는 Atom Heart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Use Schmidt와 Bernd Friedmann이 설립한 독일 음악 프로젝트로 반복적이지 않고

유기적이며 극도로 복잡한 음악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루프 베이스의 Contemporary Music이나 Techno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두 전자음악가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당시의 댄스나 전자적 공식을 넘어 60년대 재즈를 특징짓는 탐험정신을 발휘했습니다. Endless Summer는 Jazz의 사이에 작은 전자음의 충동이 Idm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 **12. STEVE REICH, PAT METHENY - ELECTRIC COUNTERPOINT : III. FAST (FROM DIFFERENT TRAINS / ELECTRIC COUNTERPOINT, 1990)**

STEVE REICH는 Contemporary(현대음악)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Minimalism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표현하려는 시도 또한 하였습니다.

Electric Counterpoint(1987)는 Brooklyn Academy of Music의 Next Wave Festival에서 기타리스트 Pat Metheny를 위해 의뢰한 곡입니다. 모두 솔로리스트가 미리 녹음된 테이프에 맞춰 연주하는 내용입니다. Electric Counterpoint에서 솔로리스트는 최대 10개의 기타와 2개의 전기 베이스 파트를 미리 녹음한 다음 마지막 11번째 기타 파트를 테이프에 맞춰 라이브로 연주합니다.

Electric Counterpoint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멈춤 없이 차례로 연주되는 세 가지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세 번째 악장은 원래의 템포와 키로 돌아가고 3박자에서 새로운 패턴을 소개합니다. 4개의 기타 캐논을 구축한 후 두 개의 베이스 기타가 갑자기 들어와 3박자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독주자는 3개의 기타 캐논으로 구축되는 새로운 일련의 스트럼 코드를 도입합니다. 이것들이 완료되면 독주자는 전반적인 대위법에서 발생하는 멜로디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베이스가 키와 미터를 모두 E단조와 C단조 사이와 3/2와 12/8 사이에서 앞뒤로 바꾸기 시작하여 먼저 4개의 8분음표 그룹 3개와 그 다음에 3개의 8분음표 그룹 4개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리듬과 음색의 변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어 마지막에 베이스가 천천히 사라지고 모호성은 마침내 12/8과 E단조에서 해소됩니다.

### **13. MONTANA - WARP FACTOR II (FROM A DANCE FANTASY INSPIRED BY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1978)**

MFSB의 멤버이자 Salsoul Orchestra의 파운더인 Vincent Montana Jr.의 Disco Funk 프로젝트 Montana의 곡 Warp Factor II 입니다. 그의 다른 프로젝트 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훌륭한 숨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골고루 플레이하지만 슬로스 레코드바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장르는 역시 근소한 우위로 Soul, Funk 그리고 Disco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곡 골라보았습니다.

#### **14. JAH WOBBIE, THE EDGE - HOLD ON TO YOUR DREAM (FROM SNAKE CHARMER, 1983)**

Jah Wobbie은 영국의 베이스리스트이자 가수이며 The Edge 역시 영국 출신의 기타리스트로 U2의 멤버로 유명합니다. 이에 더해 전설적인 Krautrock 그룹 Can의 멤버 Holger Czukay까지 세 아티스트의 합작 앨범 Snake Charmer는 Left-Field, Post-rock, Dub 등이 버무려진 멋진 프로덕션에 수준높은 믹스 마스터링이 합쳐져 들을 맛 있는 명반이 되었습니다. 8분이 넘는 긴 서사를 가진 Hold on to your dream을 감상하시면서 음악적 여행을 떠나보세요.

#### **15. HARRY THUMANN - UNDERWATER (FROM AMERICAN EXPRESS, 1979)**

HARRY THUMANN 은 독일의 전자음악가, 음반 프로듀서, 사운드 엔지니어 입니다. 그는 60년대부터 획기적인 신디사이저와 스튜디오 장비들을 설계하고 제작할 정도로 오디오 엔지니어링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첫 솔로앨범이자 두 솔로앨범중 하나인 American

Express는 어쿠스틱 악기와 신디사이저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1979년에 얼마나 빠르게 미디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앨범의 엔지니어링적인 부분 역시 크게 뛰어납니다. Euro-Disco 풍의 이 앨범의 명곡 Underwater는 유명 게임 GTA IV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 **16. NOHELANI CYPRIANO - LIHUE (FROM AROUND AGAIN, 1979)**

NOHELANI CYPRIANO는 하와의 현대 음악 사업의 리더로써 보컬리스트, 뛰어난 키보드 연주가, 그리고 작곡가입니다. Lihue는 아름다운 Soul-Jazz로 스윗한 보컬, 트로피컬 바이브,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기쁨을 주는 멜로디와 그루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시부터는 DJ KORBULLS의 디제잉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을 참조해주세요.

[instagram.com/slothrecordbar](https://www.instagram.com/slothrecordbar)